

공공기관협의회 창립식 개최

지역 서비스자원 효율성 제고 위해



포천시는 5월8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포천시 민관협력네트워크사업의 공공자원 네트워크인 공공기관협의회 창립식을 개최했다.

이날 창립식에는 관내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 포천지사, KT포천지점, 포천교육청,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공기관협의회는 지역 내 서비스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성됐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외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주민요구에 따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분과별 통합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민관협의체의 신속한 정착을 통해 비효율적 자원배분 및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공세 주민생활지원국 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민관협의

회와 공공기관협의회의 협력으로 포천시 민관협력네트워크를 조속히 구축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개발·조정·공급하는 주민행복 발전소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자"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서비스 협력체계인 포천시 민관협력네트워크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4@paran.com

우리 아이는 우리가 지킨다

마미캡 어머니 पुलिस 발대식 개최



4월30일 포천경찰서에서 어머니 पुलिस(대장 김미경) 발대식을 가졌다.

"어머니 पुलिस"는 최근 어린이를 대상으로 범죄사건이 속출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에서 '내 자녀는 내가 지킨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600여 명의 어머니들이 모여 조직됐다.

어머니 पुलिस라 불리는 마미캡은 최근 발생한 인양어린이 실종 피살사건과 일산 초등생 유괴미수 사건 등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강력사건이 발생함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포천경찰서가 조직했다.

어머니 पुलिस는 경찰과 연계해

학교주변 2인1조로 학교주변 순찰 활동을 전개하고 학교주변 통학로에 안전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양종렬 포천경찰서장은 "어머니 पुलिस는 포천시와 포천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졌다"면서 "포천경찰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4@paran.com

"성숙한 인격을 가진 학생으로 성장"

대동남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에서 전방진 이사장 당부



대동남장학회(이사장 전방진)는 5월8일 동남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여 나눔과 배움의 실천을 통해 우리를 생각하는 성숙한 인격을 가진 학생으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전방진 이사장을 비롯해 허기홍 총동문회 회장, 이주석 경기도의회 의원, 김성남·김충천 포천시의회 의원등 내빈이 참석했다.

장학금 전달식을 마치고 격려사를 통해 전방진 이사장은 "작은 뜻을 모아 시작한 대동남장학회가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해 동남중·고등학교의 교정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었으며 그동안 대동남장학금을 받고 사회와 국가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을 선배들을 생

각하면 선배로서 가슴 뿌듯한 마음 같길 바란다"고 밝히고 "학생들은 나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나눔과 배움의 실천을 통해 우리를 생각하는 성숙한 인격을 가진 학생으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대행 동남고등학교 교장은 "대동남장학회 장학금 전달을 위해 본교를 방문해주신 동문 여러분들과 내빈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선배들의 뜻을 깊이 새기고 열심히 공부하는 자랑스러운 동남고 학생들 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인재장학재단 2008년도 장학금 수여

포천소재 학생 49명과 우수교사 8명 장학금 지급

포천시인재장학재단의 2008년도 장학금 장학생 수여식이 5월8일 포천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수여식은 이사회의 심사를 통해 선발된 장학생 49명과 우수교사 8명 등 총 57명에게 장학금 및 장려금이 지급됐으며, 포천시인재장학재단 설립과 발전에 공이 많은 박윤국 전 재단이사장을 포함한 4명의 임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공세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수여식에서 "적극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다양한 교육사업을 발굴·시행해 포천시인재장학재단이 전국 제일의 장학재단

으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어버이날을 맞이해 장학생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은 학생들에게 효도의 중요성을 상기시켰으며, "장차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참된 인재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2006년12월에 설립된 (재)포천시인재장학재단은 지역인재 발굴 육성과 교육여건 개선, 명확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약 23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 100억원의 기금 조성으로 포천시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갈 글로벌 인재 양성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승환 기자 forme64@paran.com

월빙 부사의(不思議) 문서(文書)와 언어(言語)

"행하기 전에 먼저 문서부터 챙기는 습관을 키워야"

미를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고 의사소통(意思疏通)을 하기 때문이다. 뜻이나 의미로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하면서 생각이나 느낌을 공유(共有)하기 때문이다.

소리는 뜻이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그리고 뜻이나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는 여러 가지이다. 말할 수도 있고 손짓할 수도 있고 제스처(gesture)일 수도 있다. 또 글이나 문자(文字)나 그림일 수도 있다. 그래서 소리보다 의미나 뜻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소리로 판단(判斷)하는 것이 아니라 뜻이나 의미로서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식(知識)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소리보다 의미나 뜻이 더 중요한 것처럼 말보다는 문서(文書)가 더 중요하다. 말은 유동적(流動的)인 것이나 문서는 고정적(固定的)인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 번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다. 다시 주위 담을 수 없다. 그러나 흘러가면 그만이다. 지나가면 그만이다. 그런 말 한 일 없다고 잡아떼면 어쩔 수 없다. 흔적(痕跡)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녹음(錄音)할 수 있다. 마이크로 들이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특별한 경우에

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상식(常識) 이하의 일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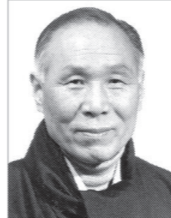
문서(文書)는 그렇지 않다. 글로 쓴 것은 그렇지 않다. 흔적(痕跡)이 남기 때문이다. 기록(記錄)이 남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한 일은 문서로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다. 모든 일은 문서가 앞선다. 생각이 앞선다는 것이고 계획(計劃)이 앞선다는 것이다. 문서가 앞선다는 것은 책임(責任)이 앞선다는 것이고 의무(義務)가 앞선다는 것이다. 또한 미리 예상(豫想)해 본다는 것이고 사전(事前)에 시뮬레이션(simulation) 해본다는 것이다.

말은 즉흥적(即興的)이나 문서는 그렇지 않다. 즉흥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문서로 달라고 하면 망설인다. 문서는 구속력(拘束力)이 강하기 때문이다. 다름이 일 때 증거(證據)가 되기 때문이다.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서로 말하는 것은 변명(辨明)의 여지가 없다. 반복할 수 없다. 문서가 스스로 말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문서로 말해야 하는 이유이고 문서가 앞서야 하는 이유이다.

그래서만은 아니다. 자신의 생

각을 정리하고 확인(確認)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일에 문서를 앞세워야 한다. 일의 우선순위(優先順位)를 정하고 필요불요(必要不要)를 따지기 위해서라도 문서를 앞세워야 한다. 행동(行動)하기에 앞서 문서로 생각하고 문서로 정리해야 한다. 꼭 필요한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시급을 다루는 일인가? 시급하지도 않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일은 뒤로 미루어도 된다. 막연히 생각하고 결정(決定)할 것이 아니라 문서(文書)로 정리하면서 생각하고 신중(慎重)하게 결정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모든 일은 문서가 말해준다. 대인관계에서 모든 일은 문서가 말해준다. 문서에 의미가 담겨있고 뜻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문서를 챙겨야 하는 이유이고 문서로 말해야 하는 이유이다. 행하기 전에 먼저 문서부터 챙기는 습관을 키워야 하는 이유이다.



이규임 인력양성연구원 명예회장

자유기고

행복의 잣대



김순희 주부영어기자단 부단장

행복의 잣대는 기준점이 무엇일까? 중환자실에 계신 분의 행복은 일 반설로 옮길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라

지지 않는 것이 행복이고 일반 실에 계신 분은 중환자실 안 가신 것이 행복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행복은 오늘이 내일보다 더 나쁘지 않으면 행복이고 운동선수는 운동할 수 있는 체력이 늘 함께 따라 주면 행복이고 연기자들은 연기에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행복이고 운전하는 분들은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이 행복이고 학생은 공부할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인 것들.

행복의 잣대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안 되면 안 된다는 마음도 내가 제일이야 하는 마음도 내가 하 조금만 한 단계 아래로 본다면는 마음에서 행복을 잃어 가는

것입니다.

"행복이 뭐야"라 했지만 우리 그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은 오해도 있고 그래서 상처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격려도 해주고 그 입장이 돼서 생각해보는 습관도 가져야 하겠습니다.

"난 다 잘하고 있다"라는 오만과 편견은 상대방 입장에서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명심하면 더 좋겠습니다.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했습니다.

언제나 배려하는 마음 잃지 마시고 행복의 잣대를 조금만 아래로 낮추면 더 행복하다는 것을 가슴깊이 새겨 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AIR pochon COMP AIR

포천 콤프레사

고압, 저압, 특수콤프레사 드라이어, 클러 판매 / 주문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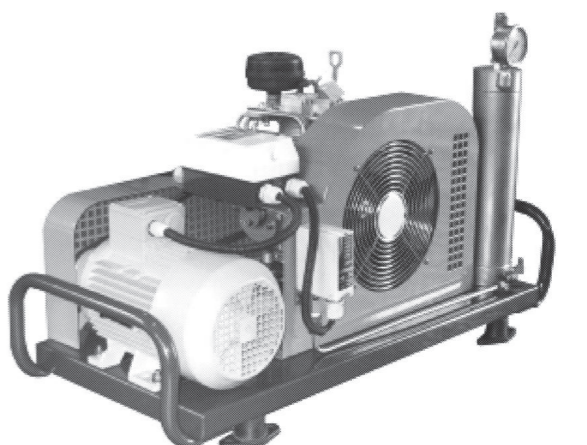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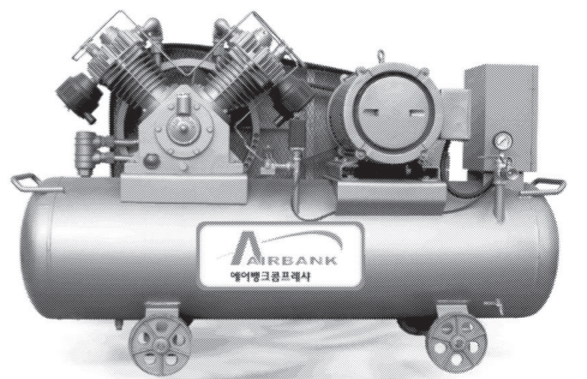


- ▶ 각종콤프레사 판매 / 수리
- ▶ 중고 고가매입, 교환판매
- ▶ 드라이 쿨러에어배관
- ▶ 고압 콤프레사 주문제작
- ▶ 스크류, 오일푸리, 오일레서

TEL : 541-0711

FAX : 541-0767, HP : 010-5033-0711

한	서	경	동	우
신	원	원	일	리
명	아	바	코	기
수	일	워	더	타



www.dhcomp.co.kr / e-mail : choun.1960@yahoo.co.kr